

“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곰쇠놈 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아 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자가 없는 주제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앓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중입니다.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담만부당한 말입니다.

종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에게 따지거나 제 의견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밭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 들어야 합니다. 일하려면 하는 것이고 밤을 새우려면 새우는 것뿐이지 거기에 거절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듀로스)이라고 불렸습니다. 헬라어로 듀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겨자씨 만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게 보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그 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지덕지 할 뿐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서라도 주셔야 할 터인데 종에게 그런 보상심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무엇을 소유해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뿐입니다.

종에게 상대적 감사나 순종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은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빼앗기고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안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히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안되고 남의 인정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지칠 만큼 수고를 하고도 한 것이 없다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지나친 겸양이라 할 지 모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에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 하는 마음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는 남을 실족케 안 할 것이며 다른 형제의 과실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신문 [1339호] 2012년 10월 1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 W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6:22-59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is the Bread of Life" Pastor
* Hymn	20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프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툼 수관롵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생명원리 ”

■ 출 2:1-9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남 가운데 아픔과 질곡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갈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납니다.

1.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의 초보자일 때는 하나님만 영접하면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닌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가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어떠한 만남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행보를 찾게 하시고, 궁핍함 속에서 여유를 갖게 합니다. 모세와 부모님의 만남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디다. 모세의 부모였던 히브리 레위 자손인 아버지 아무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으며 출애굽기6:20),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2. 하나님의 생명원리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 시험과 물 시험을 두려워하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 할 때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가 커 가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의 구원을 간구하였고, 마침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가의 무성한 갈대를 베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방수처리를 한 후, 아이를 상자 속에 넣어 이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였는데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은 예수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 사역, 생명원리가 함께 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이 미리암을 시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누이 미리암은 아기 모세를 위해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당시 절대통수권자인 이집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집트왕의 궁주에게 연결시켜 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3. 삶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시니라”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모든 지식과 학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에게,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영광과 물질보다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구세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을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쓰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관습과 편안함 속에, 타성과 매너리즘 속에 처음에 가졌던 정열과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초심을 잃지 말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확신을 붙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아픔과 슬픔도 우리의 절대자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함 없이 경외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규민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홍일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차도훈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9(나라사랑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4(3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 15:1-5,	인 도 자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9:9	인 도 자
찬 송 39(39)	다 함 께
기 도	김광욱 집사
성 경 롯 2:8-13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윤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은혜 베푸는 삶"	설 교 자
* 찬 송 419(47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램 4:1-4, 시 33:10-22, 마 25:24-30...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Greatest Need for Korean)	이종윤 목사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이명신 권사
성 경 뱀전 4: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Greatest Need for Korean)	이종윤 목사
* 찬 송 Hymn580(37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모임

1. 선교회, 전도회 8월 월례회 / 13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2. 호산나 찬양대 찬양연습 / 13일(주) 오후3시50분 602호
3. 12사단 진중세례식 / 19일(주) 오전7시 출발(인제)

◆알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노재현(안과), 노선균(흉부외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금일 세례식 실시 / 8월 세례식이 금일 8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계 준비반 (602호)로 문의바랍니다. (010-7743-3223)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결 혼 1. 정태완 군(7교구 정인주 집사, 김정애 권사의 장남)과 김수정 양(김창배 집사, 故허형숙 씨의 장녀) / 8월19일(토) 오후2시 노블발렌티(540-0711) / 2호선 삼성역 하차 후 7번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 2. 백진 군(백계욱 장로, 문춘례 권사의 차남)과 김윤지 양(6교구 김인화 성도, 장용자 권사의 장녀) / 8월19일(토) 오후3시 웨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532-5000) / 3, 7,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5 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61명	267명	274명	1,402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6일	헌금	42,192,000	
"	특별예배비		1,000,000
"	교회학교운영비		361,090
"	구 제 비		200,000
"	출 판 비		270,000
"	사무용품비		70,000
"	도서인쇄비		500,000
"	소모품비		190,500
"	통 신 비		308,840
"	차량유지비		472,200
"	세금과공과		1,550,170
"	복리후생비		60,000
"	잡 비		800,000
"	식당운영비		881,500
"	합 계	42,192,000	6,664,30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김윤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출 2:9)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